

다시 '수요 타이거즈'

■KIA '수요 타이거즈' 기록

정해영 최연소 100세이브·4시즌 연속 10S

팀 2만5000득점 '역대 세 번째'

최형우 4000루타·2100경기 출장

서건창 이적 후 첫 홈런·500타점

양현종 시즌 첫 완투승



올 시즌 '수요일 8연승'을 기록하는 등 수요일에 강했던 KIA 타이거즈가 12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앞선 패배를 딛고 승리 잇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올 시즌 수요일 경기 8연승 등 '9승 2패' 정해영 최연소 100S·팀 2만5천 득점 등 기록도 SSG전 선발 양현종 '수요 타이거즈' 잇기 특명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수요일에 유독 강했다. 수요일에 진행된 11경기에서 KIA는 9승을 수확했다. 올 시즌 개막 후 수요일 8연승을 달리면서 풍성한 기록도 만들었다. 3월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전이 수요일 연승의 시작이었다. 이날 KBO리그에 첫선을 보인 제임스 네일이 6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8-2 승리를 이끌었다. 4월 3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도 네일이 선발로

나와 6이닝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를 선보였고, 경기가 5-1 승리로 끝나면서 연승에 성공했다. 이날 서건창은 KIA 유니폼을 입고 첫 홈런을 장식했다. LG와의 홈경기가 펼쳐진 4월 10일 이의리가 팔꿈치 통증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나는 등 부상 약재가 있었지만 KIA는 5-4 승리를 거뒀다. 마무리 정해영이 6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지켰다. 4월 17일에는 월 크로우가 문학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SSG전 4연패를 끊었다.

최형우는 KBO리그 두 번째 4000루타 기록을 달성했고, 김선빈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담장을 넘기면서 그라운드를 뒤흔들었다. 김도영의 방망이도 뜨거웠다. 김도영은 3경기 연속 홈런과 함께 연타석 홈런을 장식하면서 5타점을 쓸어 담았다. 4월 24일에는 윤영철이 수요일 승리 행진에 동참했다. 이날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KIA는 역대 세 번째 팀 2만5000득점을 채우면서 6-4 승리를 만들었다. 6-2로 앞선 9회말 무사 1·2루에서 출격 한 마무리 정해영은 팀 승리를 지키면서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해영은 4시즌 연속 10세이브 기록과 함께 '22년 8월 1일'이라는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동시에 달성했다. 5월 1일 KT와의 홈경기에서는 양현종으로 시작해 양현종으로 경기가 끝났다. 이날 양현종은 나홀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9-1 승리를 이끌고, 올 시즌 첫 완투승을 장식했다.

타석에서도 눈길끄는 활약이 있었다. 이날 서건창은 500타점(역대 116번째)을 달성했고, 최형우는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다. 다음 수요일이었던 5월 8일에도 KIA는 삼성 안방에서 승리를 만들었다. 양현종이 6이닝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에도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팀은 연장 12회 승부 끝에 4-2 승리를 거뒀다. 최형우는 역대 9번째 2100경기 출장을 이뤘다. 5월 15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는 나성범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는 등 4타점을 수확하면서 네일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광도규·장현식·최지민이 나란히 홈드를 수확하는 등 8-4 승리가 기록됐다. 하지만 5월 22일 롯데 원정에서 KIA의 수요일 연승이 중단됐다. 롯데 선발 박세웅에게 8이닝 1실점으로 막혔던 KIA가 9회 1사 만루까지 만들며 '수요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았다. 2-4까지 추격은

했지만 대주자로 들어갔던 박정우의 주루수가 나오면서 KIA는 시즌 첫 수요일 패배를 기록했다. KIA는 5월 29일 NC 원정에서 나성범의 3경기 연속 홈런 등을 앞세워 6-3 승리를 거두고, 수요일 승수를 더했지만 6월 5일 다시 롯데에 털리며 잡혔다. 홈에서 경기가 펼쳐진 이날 박찬호·김도영이 5개의 안타를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나성범의 황당한 수비 실책이 나오는 등 집중력 싸움에서 밀린 KIA는 롯데전 5연패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수요일 전적은 9승 2패가 됐다. 롯데에 막히며 위기를 맞았던 KIA는 결국 1위 질주도 마감했다. KIA는 12일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다시 수요일 승리 잇기에 나선다. 새 출발선에 선 KIA가 좋은 기억을 살려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세영 "나는 건강하다...올림픽 금 자신있다"

복귀 후 국제대회 우승·준우승 "컨디션, 靛게임 전보다 올라와 라이벌 천위페이보다 70% 우위"

'배드민턴 퀸'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껏 커진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4 아시아오픈에서 준우승했다. 무릎 통증을 안고 뛰는 안세영이 2주 연속 국제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부상 복귀 후 처음이다.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안세영은 "부상으로 인한 많은 의심과 억측, 추측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 자신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니 흥분하고 후련하다. 나는 이제 건강하다. 나는 자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스타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오픈 배드민턴 여자단식 우승 세리머니에서 한국의 안세영(왼쪽)이 중국의 천위페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2020 도쿄 올림픽 8강전에서 천위페이에게 패배했던 것을 두고도 "이제는 상대 전적이 0대 7이 아니다. 저도 많이 이겨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새로운 플레이 방식이 국제 무대에서 통한다는 확신을 얻은 것도 큰 소득이다. 체력에 기반한 끈질긴 수비가 강점이었던 안세영은 무릎 부상을 기점으로 보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다. 안세영은 "오래 뛰는 것이 결코 제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빨리 끝내고 체력을 보충해야 다음 경기에서도 수월하게 뛸 수 있다. 공격과 (네트) 앞에서의 기술도 많이 씀"이라며 "빠르고 스피드가 있다는 제 장점을 활용하는 기

술이 없었다. 뛰는 게임만 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상 기간 공격 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안세영은 "스트레스는 익숙해지지 않더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인도네시아오픈에선 8강부터 결승까지 다 중국 선수였는데 아시안게임 때와는 다르게 자신감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나는 아프지 않다. 어느 상황이든 0대 0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자"는 생각으로 경기를 뛰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꾸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을 믿는다면 또 잘 이겨낼 거라는 생각에 (앞으로) 재밌어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O "비디오 판독 '주루 방해' 포함 검토"

KBO 사무국이 선수를 보호하고 여러 논란을 종식하고자 각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지는 주루 방해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실행위는 베이스를 가로막아 주자의 주루를 차단하는 주루 방해를 위협성을 공유하고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루 방해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다.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는 규칙이 아닌 리그 규정 중 하나로 KBO 사무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올해 비디오 판독 대상은 홈런, 페어 및 파울, 포

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 또는 세이프, 몸 맞는 공,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1루 3피트 수비 방해 등 14가지다. 이중 홈 플레이트에서 충돌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면서 KBO 야구 규칙에 명시된 항목이나 2, 3루에서 주루 방해는 규칙에도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다. 주자의 주루 확보 여부는 오로지 2루수 또는 3루수만 판단한다. 야구 규칙은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을 막고자 '포수는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설한다. 수비수가 2, 3루에서 주자의 주루를 막았는지를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하자는 실행위의 제안에 KBO 사무국은 관련 규정을 살핀 뒤 비디오 판독 포함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FC, 축구센터 준공 기념 팬 초청행사

16일 센터 잔디구장

광주FC가 광주축구센터 준공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하는 오픈트레이닝 행사를 연다. 광주FC는 11일 "구단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축구센터의 준공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16일 오후 3시 30분 센터 잔디구장에서 팬과 함께하는 오픈트레이닝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광주시의 지원으로 재조성 공사가 이뤄진 광주축구센터는 천연 잔디 2면과 스포츠 조명설비를 갖춘 훈련 시설로 탈바꿈했다. 앞서 광주FC는 광주축구센터의 배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픈트레이닝 행사에서는 광주축구센터 소개 브리핑을 시작으로 잔디상태 확인, 살수, 조명 등 변화된 시설을 탐방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장내어나 운서가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도 준비됐다. 또 광주축구센터에서 첫 훈련에 나서는 선수들은 팬들과 하이파이브 이벤트를 갖고, 단체사진도 촬영한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는 구단 홈페이지와 공식 SNS 계정에 공지되는 별도의 링크를 통해 13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행사에 참가할 팬을 모집한다. 2024년 광주FC 멤버십 회원은 2시간 먼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광주축구센터의 준공을 축하하고, 팬들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커피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노동일 대표이사는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선수단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